

이원재 제1차관, “경제활력·균형발전 위한 도시 재창조” 강조

- 27일 청주시 도시재생사업현장 방문… 지속가능 도시재생 당부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7일(화) 오후 2시 30분 청주시 문화제조창,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“문화제조창은 2004년 폐쇄되었던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선도사업(2014년 선정)을 통하여 문화복합 단지로 재탄생 시킨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과”라고 의미를 부여 하면서,
 - “2017년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리츠로 지정되어 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충청북도 지역문화·예술의 중심이자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,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당부하였다.
 - “올해 12월에 새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6곳은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한 만큼, 사업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”고 강조하는 한편
-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경제거점 조성 과 지역특화재생을 통해 도시공간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22. 12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